

■ 출국 전 기자회견 박찬호

해외파 빅스타의 내년 시즌 각오

■ 수술 후 재활훈련 이승엽



“빅리그 선발 복귀 주력”

“성적으로 실력 인정 받겠다”

미국프로야구 친정팀인 LA 다저스로 6년 만에 돌아온 박찬호(34)가 메이저리그 복귀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박찬호는 26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룸에서 열린 출국 기자회견에서 내년 스프링캠프에서 성적으로 평가받아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뚫겠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내년 시즌 각오를 묻는 질문에 “다저스는 나와 한국 팬에게 첫 메이저리그 팀으로 인식돼 있어 (다저스 복귀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 소망한 대로 메이저리그까지 가서 잘하는 게 목표지만 쉽지 않은 스프링캠프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짧음으로 도전하던 때보다 마음이 무겁지만 노장으로 아는 것이 많은 감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육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저스에서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빅리그 복귀를 위한 치열한 선발 경쟁을 예상했다.

초청선수 자격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 그는 “크게 비중있는 선수로 가는 게 아니지만 다저스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있고 필요해 계약했을 것이다. 새 감독이 온 만큼 구로보다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할 것이다. 어렵겠지만 성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나 자신과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저스는 브래드 페니와 데릭 로, 채드 빌링슬러, 구로다 히로키 등 4선발까지 사실상 확정해 그는 제이슨 슈미트, 에스테인 로아이스 등과 선발 자리를 다툴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불펜 활약 가능성에 대해 “구원 투수로 잘 하다 보면 선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부상 위험도 큰 만큼 되도록 선발투수로 뛰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선발진 진입에 집념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열심히 하고도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방출을 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며 이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마이내리트로 가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국 후 내년 1월부터 개인훈련을 하거나 팀 훈련에 합류한 뒤 2월 말 플로리다주 베로비치로 이동해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해결사 4번 꼭 지킨다”

“올림픽 대륙별 플레이오프 참가”

왼손 엄지 인대 복원 수술 후 재활에 몰두해 온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6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이승엽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세진헬스에서 두 시간 동안 몸을 풀고 내년 시즌 부활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이승엽은 오창훈 세진헬스 관장과 3년 전부터 함께 운동을 해 오면서 근육만으로 변신했다. 일본프로야구 일본시리즈 진출전에서 주니치 드래곤스에 패한 뒤 곧바로 10월25일 엄지를 수술한 이승엽은 두 달간 일본과 서울을 오가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그는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해 완벽히 휴식을 취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롯한 근육, 유연성 훈련을 예년보다 늦게 시작했다. 그 사이 요미우리와 2008 시즌 5천만엔이 꺾인 연봉 6억엔에 재계약을 마쳤고 컨디션이 좋다면 내년 3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출전해도 좋다는 승낙도

받았다. 이승엽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뒤 바벨 들기, 윗몸 일으키기 등으로 굳었던 근육을 풀어주며 땀방울을 흘렸다. 이승엽은 “내년에는 부상없이 1년을 보내는 게 목표”라면서 “알렉스 라미레스가 새로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는 등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4번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년에 해야 할 목표가 하나 늘었다”며 4번 해결사 자리 고수에 대한 강한 욕망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전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웠다. 내년 3월 대륙별 플레이오프 때는 반드시 참가하겠다”며 의욕을 다졌다. 이승엽의 동계 훈련이 늦어지면서 SK 와이번스 스프링캠프 참가는 2년 연속 불발됐다. 이승엽은 지난 1월 초 일본 시코쿠섬에서 열린 SK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모친상으로 국내에서 훈련을 치렀고 내년에도 세진헬스와 경북고, 영남대 구장에서 기술 훈련과 근육 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새해 1월4일부터 방방이를 잡고 스윙 훈련을 벌인 뒤 중순부터 타격 훈련도 시작할 참이다.



박태환 올림픽 ‘금’ 향한 힘찬 점영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수영장에서 수영장 리모델링 후 개장을 기념하여 열린 시범경기에서 박태환 선수가 점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뇌출혈’ 복서 최요삼 이틀째 의식 못찾아

프로복싱 경기 막판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은 최요삼(33,송민체육관)이 이틀째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최요삼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는 26일 “현재 뇌압 상승과 출혈을 막기 위해 약물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차도가 없는 상태”라며 “1주 가량 경과를 지켜보아야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치의 박형기 교수(신경외과)는 “최요삼 선수는 애초 교정맥 파열때문에 수술을 했지만 뇌압이 높은 상태에서 2시간 만에 수술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애초 2~3일 가량 차도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심장기능에 대한 것일 뿐이며 최요삼은 운동으로 단련된 만큼 심장기능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요삼은 25일 벌어진 WBO 플라이급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 종료 직전 도전자 헤리 아몰(24·인도네시아)의 오른손 스트레이트에 턱을 맞고 쓰러졌다가 일어섰지만 다시 정신을 잃었다.

KIA 한기주 내년 연봉 7천만원

올보다 40% 올라...나지완 등 신인 3명도 입단 계약

KIA 타이거즈의 특급마무리 한기주(20·사진)가 올해보다 40% 인상된 연봉 7천만원에 재계약했다. 올 시즌 2승 3패 25세이브의 좋은 성적을 거뒀던 한기주는 당초 1억원을 요구했지만 최하위를 기록한 KIA의 연봉삭감 방침에 따라 7천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한기주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팀 성적이 좋지않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내년에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모두 끌어올려 정당한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주는 지난 베이징 올림픽 예선에서 150km대 강속구를 앞세워 2이닝 2안타 무실점으로 일본 강타선을 잠재우며 호시노 일본팀 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KIA는 김주형과 상무에서 전역한 이영수(이상 내야수)와도 각각 2천500만원과 2천만원의 동결된 금액에 계약을 마쳤다. 또한 이날 KIA는 나지완(22·단국대) 등 대졸 신인 3명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년도 신인선수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2차 1번 지명을 받은 야수 나지완은 26일 계약금 1억원과 연봉 2천만원에 사인했다. 우투우타인 나지완은 키 183cm에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췄으며, 올해 대만에서 열린 제 37회 야구월드컵에서는 프로 선수들을 제치고 4번 타자로 나서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전국대학준계리그 타점상과 홈런상 수상자기도 한 나지완은 배팅 파워와 승부근성이 뛰어나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투우타의 야수 최용규(22·원광대)와 박진영(22·연세대)도 계약금 8천500만원과 연봉 2천만원에 계약을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오스 몸값 35억원

日 야쿠르트와 2년 계약

25일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입단 계약한 외국인 투수 다니엘 리오스(35·사진)의 2년간 연봉 총액이 최대 380만 달러(한화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는 26일 리오스가 첫 해 95만 달러(8억9천만원)를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릴 경우 2009년에는 보너스 포함해 최대 275만달러를 받는 조건에 ‘1+1년’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한국에서 33경기에 등판해 22승5패(평균자책점 2.07)를 기록하며 다승·방어



올·승률(0.815) 3관왕을 차지해 정규리그 최우수선수 부문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리오스는 한국을 거쳐 일본에 진출한 용병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게 된 셈이다. 야쿠르트는 2006년 노히트노런 등 9승을 달성한 리키 거타슨이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이적한 데 이어 올해도 16승으로 센트럴리그 최다승을 기록한 세스 그레이싱어가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옮기는 등 2년 연속 다른 팀에 외국인 에이스를 빼앗기게 되자 1년 계약 관례를 깨고 ‘1+1년 계약’을 맺은 것은 물론, 최고 금액을 베풀며 리오스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다.

골프·관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독펠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입찰	골프장	시세/입찰
평수	3,500	주요	1,800
남권	4,200	주요	2,400
합계	6,500	주요	3,000

상위 문의 (062)351-0095